

마을 아카이빙 시론*

김익한**

1. 머리말
2.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
3. 마을의 일반 구성과 아카이빙 객체
4. 아카이빙 주체와 방법
5. 맺음말 -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 제언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과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시론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 세 가지 논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반 기록관리 이론과 마을 아카이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차이를 인식해야 기록관리 일반 이론을 응용하여 현실에 맞

*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일시: 2010. 6. 11, 장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표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을 수정·보완한 논문임을 밝힘.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논문 :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교신), 기록학연구 20, 2009년 4월.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연구 14, 2006년 10월

는 아카이빙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 아카이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은 주체의 문제에서도 전문 아카비스트의 입장에서보다는 공동체 복원 운동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운동가로서 동시에 아카비스트의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마을 아카이빙을 하려면 마을의 구성과 각각의 구성에 의해 산출되는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마을의 구성을 자연공간, 인문공간, 역사, 공동체 조직, 공동체 문화, 경제활동, 소조직, 개별가호,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부분에서 생산될 만한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마을 아카이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마을의 공동생산이나 소비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마을 역사에 대한 아카이빙, 자연공간, 인문공간 개선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교육, 네트워킹에 대한 아카이빙의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시론은 새로이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에 우리 학계가 관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마을, 공동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활동가로서의 아카비스트,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 주민참여의 아카이빙

1. 머리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날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가 이 글의 발단이다. 그저 나눈 이야기는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문인으로서 오랫동안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맑은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다.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쓰기로 했다.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지향과 실천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둘은 밑으로부터의 길(下放)을 다시금 고민하고 실천하자, 셋은 개인의 욕구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욕구에 복종하자였다. 노제가 우리를 그리 이끌었고 남은 일은 실천이었다. 실천을 위해 모두가 애쓴 1년이였다. 지난 6.2 지방선거가 그 결과의 하나다. 필자 역시 하방하여 지방자치체의 일에 관여하였다. 이 글에는 그러한 필자의 생각의 궤적이 표출되어 있다.

필자는 기록관리를 시대 발전과의 조응관계 속에서 보아왔다.¹⁾ 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에 의해 기록관리의 기본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적 제도와 제 권리가 확보되기 시작한 시대 발전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은 생활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 발전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문화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문화자원 아카이빙의 이슈가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²⁾ 이 조응관계는 물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시대 발전에 조응하는 기록관리의 실현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기록관리의 혁신이 시대 발전의 한 동력이 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기록관리계가 항상 시대 발전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시대 발전에

1) 김익환,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2009년 7월.

2) 권소현, 김익환,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10년 4월.

조용하는 기록관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적확하게 파악, 실천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실천을 통해 시대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발전을 가속화해가기 위해서이다.

그동안의 성장 위에서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있다. 엘리트 모델의 극복을 위한 준비가 그것이다. 기록관리계가 그간 후발성의 이익 위에 엘리트 모델에 의한 발전을 해온 것은 이미 지적인 바다로다.³⁾ 정치사회 역시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아래로부터의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힘에 지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일반 의지와는 동떨어진 정치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고 정권을 잡은 정치 엘리트의 지향과 능력에 나라가 좌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민주주의를 재발견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치 제도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약하기 그지없는 시민사회의 기반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현장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확립해가기 위해 지역 공동체들의 민주적 실천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공동체 민주주의가 재발견 되고 시군구단위의 자치운동이 제대로 서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1년 전 노제 때 몇몇 지인들이 함께 이야기했다던 하방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록관리 역시 엘리트 모델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년이 넘는 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 일정한 규모의 기록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일 것이다.⁴⁾ 기록관리계의

3) 김익한,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연구 7, 2003년 4월.

4) 김익한,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2009년 7월.

엘리트 모델 극복을 위한 이슈 중 마을 아카이빙의 논의야말로 지금의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마을이야말로 공동체적 삶의 말단 현장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기반구조를 공고히 해가기 위한 민주주의의 말단 현장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민주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긴 안목에서 다시 천착해야 하는 장이 바로 마을이며, 문화와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제대로 하방해야 하는 장이 바로 마을이다. 마을 아카이빙은 정치사회 발전에 조응하는 기록관리계의 노력임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정치사회 발전을 가속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 아래 지수걸 등의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⁵⁾ 기록관리법 체제 안에서 지방기록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지만 그 지향은 지역사회의 내생성(內生性)을 고려한 자치적, 분권적 기록관리에 두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의 구성부분 안에 지역 독자의 역사 문화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자치적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글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풀무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영남의 연구는 마을 아카이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연구로서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⁶⁾ 이영남은 이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빙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 복원의 관점을 명확히 한 점, 아카이빙을 그 복원을 위한 실천의 한 구성부분으로 인식한 점, 마을 도서관 운영과 아카이빙을 결합하는 운영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문화자원 아카이빙을 다룬 정은진, 권소현 등의 논문도 마을 아카이빙의 방법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였다.⁷⁾ 마

5) 지수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2009년 7월, 이영남,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록보존 13, 2000년 12월.

6) 이영남, '마을아르케'(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008년 10월.

을 아카이빙은 마을 영위의 복합적 행위들을 기록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은진과 권소현의 연구는 연극과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이들의 복합적 행위를 기록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특히 이 시론에서 제시하려는 마을 아카이빙의 방법을 구안해내는 데 기여한 바 크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이 글에서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빙의 문제를 시론적으로나마 정리해볼 것이다. 마을의 구성을 내생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즉하여 아카이빙 객체를 정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을의 구성은 역사성과 더불어 해체의 과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지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대로 인식 가능하다. 아카이빙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답을 낼 필요가 있다. 방법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는 실천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 또 실천을 전제로 한 방법의 구안이 아닌 이상 살아있는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론적 수준이라는 한계가 필자를 포함한 학계의 현장 실천을 통해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제출한다.

2.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

필자는 마을 아카이빙을 기록관리 영역의 새로운 실천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마을 아카이빙이란 단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이를 정리, 서비스하는 기계적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과정으로서의 마을 아카이빙은 어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까? 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우선 다음

7) 정은진, 연극의 기록화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009년 4월, 권소현, 김익한,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10년 4월

의 세 가지 논점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우선 하나는 기록관리의 이론과 체계가 마을 아카이빙의 그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이다. 마을 아카이빙은 마을이라는 단위의 활동을 기록이라는 기재를 통해 기억으로 남기고 이를 소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기록관리의 일반 이론체계 속에서 논의가 가능한 대상이다. 하지만 기록관리 일반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명확히 해야 일반이론에서 배울 점을 적절하게 취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구별되는 마을 아카이빙 독자의 특성을 새로이 구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은 마을 구성원들의 삶이 영위되는 곳이므로 개념적으로는 그러한 삶의 과정과 결과로서 생산되는 기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속에서 이뤄지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마을 구성원들은 마을의 공동체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가호를 이루는 독립된 주체이기도 하다. 마을의 공동체적 활동은 마을 조직, 예를 들자면 대동계(大同契)라든지 리회(里會)와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이뤄지며 따라서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이들 조직을 통해 생산되고 집적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렇게 생산되고 집적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는 마을의 공동 소유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개별 가호에서 이뤄지는 삶의 궤적은 호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마을 공동의 소유가 아니어서 마을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마을의 공동체 조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조직이 아니어서 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개별 가호의 기록은 가족 구성원이 상주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공동체 조직보다 더 안정적으로 기록의 생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가호의 기록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을 아카이빙은 조직 내의 기록관(in-house archives)처럼 기록이 일정한 체계 하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을 아카이빙은 의도된 생산을 중시함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조직 내에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관리방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마을을 구성하는 개별 가호에 대해서는 수집형 기록관에서와 같은 적극적 수집과 더불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호 스스로가 기록을 기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 생산의 면에서도 기록관리 일반이론과 다른 면이 있다. 마을의 활동, 마을 구성원의 활동은 마치 무형문화자원이나 연극 등과 같은 연희처럼 의도된 생산이 전제될 때 의미 있는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기록을 의사소통 도구로 하여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의 기록화는 생산된 기록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반면 마을 아카이빙의 경우는 마을의 공동 활동이건 가호의 개별적 활동이건 의도된 기록 생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요한 활동의 내용이 기록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카이빙 주체의 측면에서도 마을 아카이빙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마을 구성부분의 네트워킹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 공동조직 내에 아카이빙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주관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카이빙의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공공조직이나 기업이 강제 혹은 규정에 의해 아카이빙이 진행된다면 마을은 소통, 공감, 공동체적 공동인식을 전제로 한 자율성에 의해 아카이빙이 진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기록을 지속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역할이 마을 내의 자원봉사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도 마을 아카이빙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표1] 일반 기록관리 이론과 마을 아카이빙의 차이

구분	마을 아카이빙	일반 기록관리 이론
근거 핵심기능 주체 조직기구 수집 이관 수집 대상 및 전략	공동체의 공동인식에 기반한 자율성 소통의 기재, 문화의 향유, 공동체복원 주민 모두, 네트워크 방식 중요 마을 공동조직 내의 한 구성부분 수집 및 의도된 생산이 중요 마을의 구성에 의존	법제, 규정 등의 강제성 설명책임성 실현 기록관리자 기록관 이관 위주 업무행위, 기능에 의존
관리 서비스	역사, 자연, 공동체문화, 가정 마을의 공동성에 의존, 자원봉사 전시, 이벤트 등 위주	기록관리자 및 전문조직에 의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두 번째 생각해봐야 할 논점은 마을 만들기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아카이빙이라는 지향점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응하여 새로이 마을을 생태적으로 가꾸고 관계를 재형성하려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는 것이다. 기록관리가 사회의 발전과정과 조응하며 발전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에 마을의 자치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우리의 지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제도와 제 권리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전개되어왔으나 이제는 그 내적 완성을 향해 마을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이 일반 사회에서나 기록관리 영역에서나 공히 일어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전북 진안군과 광주 북구가 각각 으뜸 마을 만들기 조례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을 선도하였다.⁸⁾ 이들 움직임은 지역 활동가들의 노력의 결실로 타 지역의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린순천21, 순천 YWCA, 순천 YMCA, 순

8)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한국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동소, 2007년 1월, 참조

천시 연합으로 진행한 순천 마을 만들기 운동,⁹⁾ 광명 하안5단지 마을 만들기 운동,¹⁰⁾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1단지 마을 만들기 운동 등 전국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은 확산 일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주며 진행되고 있는 순천의 사례, 마을 도서관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광명시의 사례는 타 지역 운동에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또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유한 김벌리의 후원 아래 역사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마을 숲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의 전설과 설화를 조사하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¹¹⁾ 진안군 계서리의 ‘계남 정미소 공동체 박물관’은 사진작가인 문화운동가가 마을에 이주하여 자발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홍성의 흥동 풀무마을은 유물관 정보센터 등을 두고 마을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복원하는 운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¹²⁾ 그 외에도 남원 매동 마을의 빈집을 이용한 마을 문화 공간 만들기의 사례, 고양시 일산 후곡 마을의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디자인 게임 등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공통점은 마을의 물리적, 외형적 개선과 더불어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운동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의 문화를 부흥하며, 이해갈 등을 조정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아카이빙은 이러한 마을 만들기의 한 구성부분

9) 김영 외,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1집 3호, 2008년 12월, 95~99쪽, 참조.

10) 강찬호, 광명시의 마을 만들기는 현재 진행형, 살기좋은 우리동네, 34호, 120~122쪽, 참조.

11) 구자인, 주민주도 상향식의 농촌 마을 만들기 -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 -, 도시와 빈곤, 84호, 2007년 2월, 62~63쪽, 참조.

12) 최승호, 김성균,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자립 방안 모색 - 충남 홍성군 흥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 2008년, 충북개발연구원, 12~18쪽, 참조.

으로서 위치지어질 필요가 있다. 마을 아카이빙 운동의 전개 방식은 마을 만들기 운동과 공동 진행을 전제로 해야 함. 기록관리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마을의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관점보다는 아카이빙의 방법을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한 수단으로 위치지우는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진행되는 자연환경의 조성, 마을의 재 디자인, 마을의 공동성 회복(이벤트, 세시풍속, 클럽, 문화활동), 소통구조의 확립(대동회 등 자치조직화, 각종 그룹 활동 구성, 역사와 아이덴티티 형성, 편지나누기, 온라인 소통구조) 등을 아카이빙함으로써 마을 구성원들의 공동활동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재로서 마을 아카이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마을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주체 역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한 실천가로서의 활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 번째 고려해야할 관점은 공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아카이빙이라는 관점이다. 일반적인 기록관리가 설명책임의 실현과 지식의 유통 등의 목적 아래 진행되듯¹³⁾ 마을 아카이빙의 특성을 고려한 목적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아카이빙이 공동체 복원 운동의 한 구성부분으로 위치지워짐을 전제로 볼 때 그 목적의 중심에는 대내적 의미에 공유와 소통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카이빙을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마을의 공동활동을 공유하고 나아가 구성원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목적의식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수집과 생산의 전략 수립이나 평가 선별에서도 공유와 소통의 목적성을 명확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모든 활동을 재현하거나 증거로서 남기기 위한 평가 선별이 아니라 공유와 소통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산·수집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것이 마을 아카이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자연환경을 아카이빙할 경우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마을 주변의 자연관찰보고서를 작성하는

13) KS X ISO15489 일반사항 총론 부분 참조.

공동활동을 기획하고 그 공동활동을 통해 아카이빙 객체를 생산하는 등의 방법을 구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 결과물 은.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게 하는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구상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아카이빙은 공유와 소통의 기재로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마을의 일반 구성과 아카이빙 객체

마을의 일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카이빙의 객체를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기본 작업이다. 기록관리는 일반적으로 기능과 행위를 파악하여 이들의 과정과 결과로 생성되는 기록을 추출하는 기법을 써왔다. 그러나 마을 아카이빙은 기본적으로는 기록관리의 일반 이론에 따라 마을의 공동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기록들을 기본 객체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자연 공간이나 인문 공간 등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부분의 기록화 역시 그 핵심적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마을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조선 전기부터 시작하여 조선 중후기에 마을 단위의 자치구조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마을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동계 등의 자치조직을 통해 공동성을 지닌 삶의 공간으로 확립되어 갔다. 마을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면 마을이 자치의 단위, 생활 문화의 단위, 두레.품앗이 등 공동노동의 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잘 알 수 있다.¹⁴⁾

이렇게 형성된 마을들은 일제 초 마을 자치와 군 단위 자치의 단절

14)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일조각, 1992년 12월, 참조.

을 경험하게 된다. 1914년의 군면동리통폐합 조치가 그것인데 마을은 이 조치에 의해 그 구획 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대체로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는 1918년까지 마을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전국 평균으로 보면 기존 마을 3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는다.¹⁵⁾ 현재 남아있는 **리의 구역 안에 ** 1리, ** 2리, **3 리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은 일제 초의 동리통폐합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마을 공동체 복원의 단위는 일제 초에 만들어진 행정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된 구동리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 문화, 노동의 공동단위가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구동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농현상으로 동리의 공동성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이동과 새로운 입주민의 발생함과 동시에 장기 지속적으로는 농촌 마을 전반이 공동(空洞)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화 위주의 농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폐쇄화 현상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해체라는 현상을 동반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을을 복원하고 새롭게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단위는 구동리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동리의 공동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역사적 파악을 전제로 구동리 단위의 마을의 일반적 구성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은 기본적으로 자연공간, 인문공간, 역사, 공동체 조직의 운영, 공동체 문화, 내부 소조직의 운영과 활동, 개별 가호, 지역 간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15) 군면동리통폐합에 대해서는 김익환,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 -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3, 1996년, 참조.

[표2] 마을의 일반적 구성

구분	구성 내용 및 활동
자연공간	경관, 산, 내, 동물, 식물, 훼손, 복구
인문공간	길, 골목, 건축, 농지, 축사, 공공시설, 건개축, 성당당, 유적
역사	형성, 인물, 전래, 전근대.근대.현대 이야기, 마을 특성의 역사
공동체 조직	대동계, 반회, 두레.품앗이활동, 대동회, 청장년회, 부녀회, 노인회
공동체 문화	세시행사(정월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 5월 편지배달행사, 경로잔치, 마을 운동회, 마을 공연, 축제 등 이벤트
경제활동	농사, 축산, 마을가게, 소금.비료배급, 특성화사업
소조직	마을 공부방, 독서회, 각종 예술모임, 운동모임, 봉사모임
개별 가호	가족 활동, 가호별 세시풍속, 가호별 문화
네트워크	시장, 동.면자치센터, 농협, 결연마을

마을을 구성하는 자연공간에 대한 아카이빙은 마을과 함께 공생하는 자연공간의 의미를 함께 인식하고 또 그 구성물들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여기에는 자연경관과 마을의 어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함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지리지도나 옛 지도, 옛 사진 등 역시 아카이빙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을 산의 전체, 부분을 담은 사진, 동영상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스케치, 산길을 포함하는 마을 길의 아름다움, 마을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산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각종 기록들, 산림계, 임회지관련 기록 등 역시 아카이빙의 주된 객체가 된다. 마을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의 사진들과 그 통성에 대한 정보들, 마을 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마을환경지도, 산들내 지도 등도 아카이빙의 좋은 대상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에 의해 마을의 자연공간이 훼손된 사례나 자연공간의 보존을 위한 마을의 활동 관련 기록들도 자연공간과 관련된 아카이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문공간은 마을의 삶, 산업, 사건 등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아카이빙 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인문공간의 변화와 그에 담긴 다양

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의 의미 있는 공간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고 또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가는 데에 기여한다. 그 외에도 길과 골목의 형성, 변화, 그리고 길과 문화를 엮은 길 이야기,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소통과정에 대한 기록들, 농지, 과수원, 축사 등의 구성과 변화와 관련된 기록들 역시 아카이빙의 주요 대상이 된다. 마을에 따라서는 성황당, 유적 등의 사진, 동영상과 이들에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도 마을의 인문공간 아카이빙의 좋은 대상이다. 기타 공공시설, 주거공간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및 그 변천과 관련된 기록들, ‘우리 집 자랑’ 등 인문공간 관련 이벤트의 결과물들 역시 좋은 아카이빙의 소재들이다.

역사 아카이빙은 마을 역사를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치유와 화해의 기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가는데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 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기록과 전승들, 마을의 인물사와 관련된 기록, 구술, 기타 유물들, 마을에 남아있는 각종 전래, 설화 등을 포함한 역사 구술 등이 좋은 아카이빙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운영과 관련된 동약 등의 관련 기록, 근현대와 관련해서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5.18 등 특정 역사시기와 관련된 기록과 유물, 구술 등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체 조직은 마을에 따라 대동계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적 보조자로서의 이장만 존재하고 마을 공동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여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행정리의 하위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 아카이빙은 이러한 공동체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조직과 관련해서는 해방 직후 혹은 1960년대까지 존재하였을 동계, 대동회 등의 조직과 관련된 기록, 현존 공동체 조직의 시초와 관련된 기록과 구술, 공동체 조직의

회의록, 활동 일지 등이 중요하다. 또한 두레나 품앗이 관련 구술, 공동 노동시의 민요를 비롯한 소리기록, 각종 공동 기구들도 아카이빙할 중요한 대상이다. 또 상조와 관련된 기록과 박물, 기타 청장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각종 조직 단위의 활동 기록과 구술 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아카이빙은 마을 단위에서 벌어진 집단적 문화행위나 참여를 기록화하는 것으로 마을의 공동성과 주민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핵심 기록 중의 하나이다. 세시 풍습에 관한 마을의 기록, 관련 사진, 동영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 기록, 마을 내의 학교 등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기록,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등 마을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와 관련된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을 아카이빙하는 것은 삶의 물질 기반이 되는 생업 구성과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경제활동에서 파생되는 마을 주민의 일상을 재현해 줌과 동시에 마을의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재로 기능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의 생업의 현장 기록, 사진, 영농일지 등이 대표적인 기록에 해당하며, 마을의 주작목, 주업의 변화에 관한 기록, 농업 개발 등 실험적인 시도에 관한 기록 등도 좋은 아카이빙 대상이 된다. 마을 주산품의 거래처와 유통에 관한 기록이나 마을의 농지지도, 작목지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다.

소조직 아카이빙은 소조직 형태로 분출된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록화함으로써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대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빙의 주요 소재가 된다. 소모임의 결성과정에 관한 기록, 모임의 홍보와 참여자 평가, 성과에 관한 기록, 모임에서 벌인 이벤트에 관한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별 가호에 대한 아카이빙은 마을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족과 가호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문화를 기록화함으로써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여준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 여행, 행사 등 활동

기록, 종갓집의 제사 풍습, 종교에 따른 풍습 등 가호별 문화의 차이에 따른 특별한 활동 기록을 수집하여 공유함으로써 마을 주민간의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아카이빙은 해당 마을이 다른 마을이나 조직, 정부나 국가 등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록화함으로써 세상 속 마을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 풍경 기록, 정기적, 경제적, 이벤트 성의 교류를 하는 관련 마을에 관한 기록,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외의 마을과의 교류 기록, 농촌봉사활동, 의료봉사활동 등 마을을 찾아온 집단과의 교류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마을 아카이빙은 다양한 기록 개체를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 운동의 지향과 복원하고자 하는 마을의 비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아카이빙을 할 때는 마을의 비전에 기반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행할 때는 수집할 것과 기록화할 것을 구분하여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마을 활동 기록들을 위에 제시한 다양한 대상들 중 선별하고 수집, 생산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4. 아카이빙 주체와 방법

마을의 일반적 구성과 아카이빙 대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어떠한 주체가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실에 즉하여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아카이빙 역시 주체의 명확한 설정과 주체에 의한 실행이 담보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의 주체가 기록전문가라면 마을 아카이빙의 주체는 마을 주민 모두와 마을 만들기 활동가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의 리드 역할이 중요하나 동시에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아카이빙의 일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 결과를 매뉴얼과 같은 공구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컨설팅을 시행하여 주민 모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반적으로 마을의 이장 직속으로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나 마을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형제화된 조직을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을 진행한다. 마을 약정의 수립을 통해 공동체 조직 및 조직의 활동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조직 내의 기능 분장과 기능별 주민 분담체계를 확립하여 운동을 전개해 간다. 이 과정에서는, 약정에 마을 아카이빙을 위한 생산, 수집, 관리, 이용에 대한 사항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아카이빙을 시행함으로써 아카이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운영 조직 내에서 문화 활동의 중심인물이 아카이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화활동의 대부분은 아카이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행위 그 자체를 마을 공동 문화활동을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위한 조직적, 규약적 준비가 되면 이 규약에 의거하여 마을 만들기 조직에서 먼저 마을의 공동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디자인 전문가 등 외부 자문조직의 협력이 중요한데 여기에 기록관리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운동의 과정에서 아카이빙의 기법들이 유의미한 수단으로 위치지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을 아카이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표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행과 마을 아카이빙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영역	아카이빙 영역
마을 공동생산·소비 구조 확보 마을의 역사를 복원하는 활동 자연공간에 대한 개선 활동 인문공간에 대한 개선 활동 마을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 네트워킹 확대 발전 활동	진행과정 기록화 및 수집 역사 기록 수집, 구술 기획 어린이 스케치 이벤트, 자연공간 사진 이벤트 대표적 공간에 대한 사진 등 교육 과정 및 성과물 아카이빙 마을 간 연대활동 아카이빙

[표3]에서 예시한 것처럼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기획, 실행되는 각각의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 중 아카이빙 할 대상을 선별하여 마을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가치 높은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카이빙한 기록들은 마을 자치조직의 일상활동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여 의미있는 아카이브즈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일회성의 사업을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체 조직 내에 있는 문화부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즈를 관리하고 또한 새로운 활동을 계속 아카이빙하게 함으로써 마을 아카이브즈는 마을 공동체의 복원 과정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마을 공유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컨셉의 전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 아카이브 전시관, 마을주민의 회합공간 등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것 역시 아카이빙을 실질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5. 맺음말 -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 제언

이상에서 시론적이거나 마을 아카이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차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연구 역시 보다 체계와 구성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록관리 영역의 엘리트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동가로서의 아카비스트이다.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아카이빙 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 지방 소재 마을에 전업적으로 이주하는 본격적인 케이스에서, 본업을 따로 갖으면서 주변 지역 마을의 아카이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까지 활동가로서의 아카비스트 상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단계에서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과 각 지방의 기록학 대학원의 연계 활동을 통해 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감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질서가 보다 현장의 차원에서 확립되어가고,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마을 아카이빙 운동은 보다 많은 대중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힘이 되어 국가 아카이브즈의 정상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이야말로 그간 기록관리계가 확보하지 못했던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은 위로부터의 제도 개선 운동과 양립할 수 있으며 그 양립이야말로 한국의 기록관리가 발전해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rchiving of a village

Kim, Ik-han

This study try to establish the method on the archiving of a village experimentally.

For this study three standpoints were investigated. We discriminate between the theory and practice on general archives management and village archiving. We should grasp that the practice of village archiving is a means to the movement of village community reconstruction. And we clear up the point that village archiving head for the community ownership and the communication.

This study clarified what were the constituent units in a village and what were the archives that were produced by the constituent units in a village. It is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rategy on a village to identify concretely the objects of village archiving.

The main body who lead the village archiving is not archivist only. But he should be a man who serve his community and have the competency to deal with archives professionally simultaneously.

The suggestion of village archiving in this study has the meaning that Korean archivists should get over the model of elite so that seek after new way of the going down to the archiving fields.

village, community, the ordinance for the reconstruct of the beautiful village community, activistic archivist, archiving movement going down to the

village fields, archiving by participation of community

Key Words: village, community, the ordinance for the reconstruct of the beautiful village community, activististic archivist, archiving movement going down to the village fields, archiving by participation of community